어둠 속을 떠도는 자

The Haunter of the Dark

H.P. 러브크래프트 (1890–1937)

1936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5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H.P. Lovecraft, "The Haunter of the Dark" (Weird Tales 1936년 12월)

저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Howard Phillips Lovecraft, 1890–1937)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73233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5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에 있는 어느 오래된 교회에 관한 강력한 이야기다. 그곳을 아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그 교회를 멀리하고 두려워했다.

(로버트 블로크에게 바침)

나는 보았다, 어둠의 우주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을. 그곳에선 검은 행성들이 목적도 없이 굴러다닌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공포 속에서, 그 행성들은 지식도, 광채도, 이름도 없이 그저 굴러다닐 뿐이다.

—네메시스.

신중한 조사자라면 로버트 블레이크가 벼락에 맞았거나, 혹은 전기 방전에 의한 극심한 신경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통념에 쉽게 도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마주했던 창문이 깨지지 않은 채 멀쩡했다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연은 때때로 기괴하고 상식 밖의 현상을 일으키곤 한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 또한 그가 본 것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근육의 알 수 없는 경련으로 인해 생겨났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한 그의 일기장에 적힌 기록들은, 그 지역의 미신과 그가 파헤쳤던 과거의 사건들로 인해 자극받은 환상적인 상상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임이 분명하다. 페더럴 힐의 버려진 교회에서 발견된 기이한 정황들에 대해서도, 예리한 분석가라면 이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누군가의 사기 행각 때문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블레이크 역시 그 사기 행각에 비밀리에 연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희생자는 신화와 꿈, 공포와 미신이라는 분야에 온전히 몰두해 온 작가이자 화가였다. 그는 기괴하고 유령 같은 장면과 분위기를 찾아 헤매는 데 열정적인 사람이기도 했다. 그가 이전에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 자신만큼이나 오컬트와 금기된 지식에 깊이 빠져 있던 한 기이한 노인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방문은 죽음과 불길 속에서 끝이 났다. 밀워키의 집을 뒤로하고 그를 다시 이곳으로 이끈 것은 분명 어떤 병적인 본능이었을 것이다. 일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적혀 있었지만, 어쩌면 그는 그 오래된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또한 그의 죽음으로 인해, 훗날 문학적 영감으로 승화될 뻔했던 어떤 거대한 속임수가 미처 꽃을 피우기도 전에 꺾여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대조해 본 이들 중에는, 여전히 비합리적이고 흔해 빠진 이론을 고집하는 이들이 몇몇 있다. 이들은 블레이크의 일기를 액면 그대로 믿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몇 가지 사실을 결정적인 근거로 내세운다. 오래된 교회의 기록이 의심할 여지 없이 진짜라는 점, 1877년 이전부터 사람들이 꺼리던 비정통적인 '별의 지혜' 교단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 1893년에 에드윈 M. 릴리브리지라는 호기심 많은 기자가 실종되었다는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은 작가인 블레이크가 죽을 당시 그의 얼굴에 서려 있던, 형언할 수 없이 기괴하고 변형된 듯한 공포의 흔적 같은 것들 말이다.

광적인 극단에 치달은 이 신봉자 중 한 명은, 오래된 교회의 첨탑에서 발견된 기묘한 각도의 돌과 기이한 장식이 된 금속 상자를 바다에 던져 버렸다. 여기서 첨탑은 창문 하나 없는 검은 첨탑을 말하며, 블레이크의 일기에 원래 그것들이 있었다고 기록된 탑과는 다른 곳이다. 이

남자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거센 비난을 받았으나, 기이한 민속학에 관심이 많은 평판 좋은 의사로서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자신은 이 땅 위에 머물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무언가를 지구상에서 몰아냈다고 말이다.

두 가지 상반된 견해 사이에서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겠다. 신문들은 회의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세부 사항들을 전달해 왔다. 로버트 블레이크가 실제로 목격했거나, 혹은 목격했다고 믿었거나, 아니면 목격한 척했던 그 참혹한 광경을 그려내는 일은 다른 이들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다. 이제 그가 남긴 일기를 면밀하고도 냉정하게,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찬찬히 살펴보며, 사건의 주역이었던 블레이크의 시각을 통해 그 어두운 사건의 연쇄를 요약해 보고자 한다.

* * * * *

젊은 블레이크는 1934년에서 1935년 사이의 겨울, 프로비던스로 돌아왔다. 그는 브라운 대학교 캠퍼스 근처, 대리석으로 지어진 존 헤이 도서관 뒤편의 거대한 동쪽 언덕 꼭대기에 자리한 오래된 저택 위층을 빌려 지냈다. 그 저택은 칼리지 스트리트 옆, 풀이 무성한 안뜰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마을의 옛 정취를 간직한 작은 정원 속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다. 그곳의 볕 잘 드는 창고 위에는 커다란 고양이들이 한가로이 햇볕을 쬐고 있었다.

정사각형 모양의 조지아 양식 저택은 모니터 지붕과 부채꼴 문양이 새겨진 고전적인 현관, 격자무늬 창문 등 19세기 초반의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갖추고 있었다. 집 안에는 여섯 개의 판을 댄 문과 넓은 바닥

판재가 깔려 있었고, 곡선을 그리는 식민지풍 계단과 흰색 아담 양식의 벽난로 선반이 놓여 있었다. 저택 뒤편에는 전체 층보다 세 계단 아래로 낮게 자리 잡은 방들이 있었다.

블레이크의 서재는 남서쪽을 향한 커다란 방이었다. 한쪽으로는 앞마당이 내려다보였고, 서쪽 창문들은 언덕의 능선을 마주하며 펼쳐져 있었다. 그는 그 창문 중 하나 앞에 책상을 두고 일했다. 창밖으로는 마을 아래로 넓게 퍼진 지붕들과, 그 너머에서 불타오르는 신비로운 저녁노을이 한눈에 들어왔다. 멀리 지평선 끝에는 보랏빛 경사면을 가진 탁트인 시골 풍경이 자리했다. 그로부터 약 2마일 떨어진 곳에는 페더럴 힐의 유령 같은 능선이 솟아 있었다. 그 언덕 위로는 집들의 지붕과 첨탑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는데, 도시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그 사이를 휘감으며 기묘한 형상을 만들어낼 때마다 멀리 보이는 윤곽들은 마치 환상적인 모습으로 일렁이는 듯했다. 블레이크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기묘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다. 만약 자신이 직접 그곳을 찾아 들어가려 한다면, 그 세계가 꿈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말이다.

블레이크는 소장하고 있던 책 대부분을 집으로 보낸 뒤, 거처에 어울리는 골동품 가구 몇 점을 구입했다. 그러고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정착했다. 그는 홀로 지내며 소박한 집안일도 직접 도맡아 했다. 그의 작업실은 북쪽 다락방에 있었는데, 경사 지붕의 창문들이 들어오는 빛이 아주 훌륭했다. 그 첫 겨울 동안 그는 가장 잘 알려진 단편 다섯 편—〈지하의 파헤치는 자〉, 〈지하 묘지의 계단〉, 〈샤가이〉, 〈프나스 계곡에서〉, 〈별에서 온 포식자〉—을 집필했고, 일곱 점의

유화를 그렸다. 그것들은 이름 모를 비인간적인 괴물들과, 지구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지극히 이질적인 외계의 풍경을 담은 습작들이었다.

해 질 녘이면 그는 책상에 앉아 서쪽으로 펼쳐진 풍경을 몽상에 잠긴 채 바라보곤 했다. 바로 아래로 보이는 메모리얼 홀의 검은 탑들과 조지안 법원의 종탑, 도심의 높이 솟은 첨탑들, 그리고 멀리서 일렁이는 첨탑 달린 언덕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 언덕의 이름 모를 거리와 미로 같은 박공지붕들은 그의 상상력을 강렬하게 자극했다. 몇 안 되는 현지 지인들을 통해 알아낸 바에 따르면, 저 멀리 보이는 경사지는 거대한 이탈리아인 거주 구역이었다. 비록 그곳의 집들 대부분은 옛 양키인이나 아일랜드인들이 남긴 흔적이었지만 말이다.

그는 이따금 쌍안경을 들어 피어오르는 연기 너머의 유령 같고도 닿을 수 없는 세계를 살폈다. 지붕과 굴뚝, 그리고 첨탑 하나하나를 골라내며, 저 건물들이 어떤 기괴하고도 기묘한 비밀을 품고 있을지 짐작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광학 기구의 도움을 받아 보아도 페더럴 힐은 어쩐지 이질적이고 반쯤은 환상처럼 느껴졌다. 마치 블레이크가 써 내려간 이야기와 그림 속의 비현실적이고 형체 없는 경이로움과 맞닿아 있는 듯했다.

언덕이 보랏빛으로 물들고 가로등이 별처럼 켜지는 황혼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그 기분은 오래도록 가시지 않았다. 법원의 투광등이 켜지고 인더스트리얼 트러스트 건물의 붉은 신호등이 번쩍이며 밤을 기괴하게 물들인 뒤에도 말이다.

페더럴 힐에 보이는 수많은 먼 풍경 중에서도, 블레이크의 마음을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은 것은 거대하고 어두운 어느 교회였다. 그 교회는 하루 중 특정 시간대가 되면 유독 선명한 존재감을 드러내곤 했다. 해가 질 무렵이면, 거대한 탑과 끝이 뾰족한 첨탑이 불타는 듯한 하늘을 배경으로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며 우뚝 솟아올랐다. 교회는 유난히 높은 지대에 자리 잡은 듯 보였다. 때 묻은 정면과 비스듬히 보이는 북쪽 측면, 그리고 경사진 지붕과 거대한 첨두아치 창문의 윗부분이 주변의 뒤엉킨 지붕 마루와 굴뚝들을 압도하며 당당하게 솟아 있었기 때문이다. 유독 음산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 건물은 돌로 지어진 듯했는데, 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연과 폭풍우를 견디며 얼룩지고 풍화되어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짐작건대, 그 양식은 장엄한 업존 시대 이전의 초기 고딕 부흥 양식으로 보였다. 조지 시대의 윤곽과 비례를 일부 간직한 실험적인 형태였다. 아마도 1810년이나 1815년 무렵에 세워졌을 것이다.

몇 달이 흐르는 동안, 블레이크는 저 멀리 보이는 불길한 건축물을 묘하게 고조되는 흥미를 느끼며 지켜보았다. 거대한 창문들에는 불빛이 전혀 비치지 않았기에, 그는 그곳이 비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곳을 오래 관찰할수록 상상력은 더욱 자극되었고, 마침내 그는 기이한 환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는 그곳에 모호하고도 기이한 황량함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믿었다. 그 기운 때문인지 비둘기와 제비조차 그 연기 자욱한 처마 밑으로는 발을 들이지 않았다. 망원경으로 다른 탑이나 종루를 살펴보면 새 떼가 무리 지어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새들이 결코 머물지 않았다. 적어도 블레이크는 그렇게

생각했고, 자신의 일기에도 그렇게 적어 두었다. 그는 몇몇 친구들에게 그곳을 가리켜 말해주기도 했으나, 친구들 중 누구도 페더럴 힐에 가본 적이 없었으며, 그 교회가 무엇인지 혹은 과거에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눈곱만큼의 지식도 없었다.

* * * * *

봄이 찾아오자 블레이크는 깊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메인주에 마녀 숭배 집단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계획해 온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필은 진척이 없었다. 그는 점점 더 자주 서쪽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언덕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새들조차 외면하는, 검고 험상궂은 첨탑이 솟아 있었다. 정원 나뭇가지에 연약한 잎사귀들이 돋아나며 세상이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을 때도, 블레이크의 불안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다. 바로 그때, 그는 도시를 가로질러 저 환상적인 경사로를 직접 올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연기에 휩싸인 꿈의 세계 속으로 말이다.

4월 말, 영겁의 그림자가 드리운 왈푸르기스의 때가 오기 직전, 블레이크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첫 발을 내디뎠다. 끝없이 이어진 도심의 거리와 그 너머의 황량하고 퇴락한 광장들을 묵묵히 지나던 그는 마침내 한 언덕길에 다다랐다.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계단이 위로 뻗어 있고, 내려앉은 도리스식 현관과 흐릿한 유리창의 돔형 지붕이 늘어선 길이었다. 그는 이 길이 안개 너머,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으나 결코 닿을 수 없었던 저편의 세계로 이어질 것이라 직감했다.

거리에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칙칙한 청백색 표지판들이 걸려 있었다. 곧이어 그는 스쳐 지나가는 군중들의 기이하고 어두운 얼굴들과, 수십 년의 세월에 풍화된 갈색 건물들 사이 기묘한 상점 위에 걸린 낯선 간판들을 눈여겨보았다. 멀리서 보았을 때 보였던 풍경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블레이크는 멀리서 보았던 그 페더럴 힐이, 살아있는 인간의 발길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꿈속의 세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환상에 다시금 사로잡혔다.

때때로 낡은 교회 정면이나 허물어져 가는 첨탑이 눈에 들어오기도 했으나, 블레이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검게 그을린 건물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한 상인에게 거대한 석조 교회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도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블레이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주변 풍경은 점점 더 기묘해졌다. 남쪽을 향해 끝없이 뻗어 나간 갈색 골목들은 마치 어둡고 음산한 미로처럼 뒤엉켜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넓은 대로를 두세 번 가로질렀고, 한때는 익숙한 탑을 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블레이크는 다시 한 번 상인에게 그 거대한 석조 교회에 대해 물었다. 이번에는 상대가 모른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검은 피부의 상인은 두려움을 숨기려 애쓰고 있었으나, 그 얼굴에는 분명 공포가 서려 있었다. 블레이크는 그가 오른손으로 기이한 몸짓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때 갑자기, 뒤엉킨 남쪽 골목을 따라 늘어선 갈색 지붕들 위로 검은 첨탑 하나가 구름 낀 하늘을 배경 삼아 솟아올랐다. 블레이크는 그것이 무엇인지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대로에서부터 위로 뻗어 올라가

는 지저분하고 포장되지 않은 길을 따라 그 첨탑을 향해 돌진했다. 길을 두 번이나 잃기도 했으나, 그는 차마 누구에게도 길을 묻지 못했다. 문 앞에 앉아 있는 노인들이나 주부들에게도, 어두운 골목 진흙탕 속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노는 아이들에게도 차마 입을 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마침내 남서쪽 하늘을 배경으로 탑의 형체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골목 끝에는 거대한 돌덩어리 같은 형체가 어둡게 솟아 있었다. 곧이어 블레이크는 바람이 몰아치는 탁 트인 광장에 섰다. 광장 바닥에는 기묘한 모양의 돌들이 깔려 있었고, 저 멀리 건너편에는 높은 둑벽이 버티고 있었다. 탐색의 끝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 벽이 떠받치고 있는, 철제 난간이 둘러쳐진 넓고 잡풀 무성한 고원 위에는 거대하고 엄숙한 형체가 서 있었다. 그 고원은 주변 거리보다 6피트나 높게 솟아 있는, 마치 별개의 작은 세상 같았다. 블레이크의 시야가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서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는 논란의 여지 없이 분명했다.

텅 빈 교회는 폐허나 다름없었다. 높게 솟은 석조 부벽 중 일부는 무너져 내렸고, 섬세하게 조각된 첨탑 장식 몇 개는 갈색으로 변해버린 잡초와 풀숲 사이에 반쯤 파묻혀 있었다. 그을음이 묻은 고딕 양식의 창문들은 석조 멀리언이 많이 유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깨지지 않은 상태였다. 블레이크는 전 세계 꼬마아이들의 장난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저렇게 어둡게 채색된 유리창들이 이토록 온전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지 의아했다. 육중한 문은 닫힌 채 그대로였고, 부지를 완전히 둘러싼 둑 벽 위로는 녹슨 철제 울타리가 이어져 있었다. 광장에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나오는 울타리 문에는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

었다. 문에서 건물로 이어지는 길은 잡초가 무성해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었다. 황량함과 부패의 기운이 수의처럼 그곳을 덮고 있었다. 새 한 마리 보이지 않는 처마와 담쟁이덩굴조차 자라지 못한 검은 벽을 바라보며, 블레이크는 형언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 * * * *

광장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나, 블레이크는 북쪽 끝에 서 있는 경찰관 한 명을 발견했다. 그는 교회에 대해 묻기 위해 그에게 다가갔다. 경찰관은 건실하고 인상 좋은 아일랜드인이었지만, 그가 그저 성호를 긋고는 사람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는 결코 입을 열지 않는다고 중얼거리는 모습은 어딘가 기이하게 느껴졌다. 블레이크가 계속해서 캐묻자, 그는 서둘러 대답했다. 이탈리아인 신부들이 그 건물에 대해 경고하며 모두를 주의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신부들은 과거에 그곳에 거대한 악이 깃들어 있었으며, 그 흔적을 남기고 떠났다고 맹세하듯 말했다. 경찰관 자신도 아버지로부터 그 건물에 관한 불길한 속삭임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들었던 기묘한 소리와 소문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옛날 그곳에는 사악한 종파가 있었다. 알 수 없는 밤의 심연으로부터 끔찍한 존재들을 불러내던 무법적인 종파였다. 그들이 불러낸 것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유능한 사제가 필요했다. 물론 그저 빛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말이다. 만약 오말리 신부가 살아 있었다면 들려줄 이야기가 아주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내버려 두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다. 지금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

으며, 그 물건의 주인들은 모두 죽었거나 멀리 떠나버렸다. 77년도에 사람들이 이웃에서 하나둘씩 사라지는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쥐새끼처럼 도망쳐 버렸다. 언젠가 상속인이 없다는 이유로 시 당국이 개입해 그 부동산을 몰수하겠지만, 그 누구도 그곳을 건드려 봤자 좋을 것이 없다. 차라리 세월이 흘러 저절로 무너지게 두는 편이 낫다. 영원히 검은 심연 속에 잠겨 있어야 할 존재들을 깨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기에.

경찰관이 떠난 뒤, 블레이크는 침울하게 솟아오른 첨탑 건물을 멍하니 응시했다. 그 건물은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불길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그 사실이 블레이크의 흥미를 자극했다. 그는 제복 입은 경찰관이 늘어놓았던 옛이야기들 속에 과연 어떤 진실의 파편이 숨어 있을지 궁금해졌다. 아마도 그 이야기들은 그 장소가 풍기는 사악한 분위기가 만들어낸 단순한 전설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설들은 마치 그가 쓴 이야기 중 하나가 기이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흩어지는 구름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비쳐 나왔으나, 높은 고원 위에 우뚝 솟은 그 오래된 사원의 그을리고 얼룩진 벽면까지는 빛이 닿지 못하는 듯했다.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인 높은 마당에는 갈색으로 말라비틀어진 식물들뿐이었고, 봄의 푸르름조차 그곳에는 닿지 않은 것 같아 기묘한 기분이 들었다. 블레이크는 자신도 모르게 그 높은 구역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침입할 만한 통로가 있는지 살피며 둑벽과 녹슨 울타리를 훑었다. 검게 변한 그 사원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유혹이 서려 있었다. 계단 근처의 울타리에는 틈이 없었지만, 북

쪽 방향으로 돌아가니 창살 몇 개가 빠져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 울타리 바깥쪽의 좁은 난간을 따라 걷다 보면 그 틈새에 다다를 수 있을 터였다. 사람들이 이 장소를 그토록 격렬하게 두려워한다면, 그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누구도 그를 알아채기 전에, 그는 이미 제방 위에 올라서서 울타리 안쪽까지 거의 들어와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광장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고 있었다. 그들은 거리의 가게 주인이 했던 것과 똑같은 동작을 오른손으로 그려 보였다. 창문 몇 개가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한 뚱뚱한 여인이 거리로 튀어나오더니 어린아이들을 끌고 낡고 페인트도 벗겨진 집 안으로 급히 몸을 숨겼다.

울타리 사이의 틈은 통과하기 매우 쉬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블레이크는 버려진 마당의 썩어 문드러진 덩굴 식물 사이를 헤치며 걷고 있었다. 여기저기 닳아 없어진 묘비의 밑동이 이곳이 한때 매장지였음을 말해주었으나, 그 일은 아주 오래전의 일임이 분명했다.

교회에 가까워지자 거대한 건물의 육중한 부피가 압박감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블레이크는 불길한 기분을 억누르고 정면의 거대한 문 세 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갔다. 문들은 모두 굳게 잠겨 있었다. 그는 작은 틈이라도 찾아보려 거대한 건축물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마치 거인들이 쌓아 올린 듯한 이 압도적인 건물에서, 더 작고 통과하기 쉬운 입구를 찾으려는 심산이었다.

그 순간에도 블레이크는 자신이 왜 이 버려진 그림자의 소굴에 발을 들이려 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이한 분위

기가 뿜어내는 기묘한 이끌림에 이끌려 그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건물 뒤편에는 입을 벌린 채 방치된 지하실 창문이 있었고, 그곳이 필요한 통로가 되어주었다. 블레이크가 창 안을 들여다보자, 서쪽에서 스며든 희미한 햇살 아래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인 지하의 심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잔해와 오래된 통, 부서진 상자와 온갖 종류의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으나, 모든 사물은 두텁게 내려앉은 먼지 속에 파묻혀 날카로운 윤곽을 잃은 채 뭉툭하게 보였다. 녹슨 온풍로의 잔해를 보니, 이 건물은 빅토리아 시대 중기까지만 해도 사용되며 관리되었던 모양이었다.

블레이크는 의식적인 판단조차 거의 하지 못한 채, 창문을 통해 기어 들어갔다. 그는 먼지 융단이 깔리고 잔해들이 흩어진 콘크리트 바닥으로 몸을 내려놓았다. 칸막이 하나 없이 탁 트인 지하 저장고는 광활했다. 오른쪽 멀리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구석에는 위층으로 이어지는 듯한 검은 아치형 통로가 보였다. 거대하고 유령 같은 건물 안에 직접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그는 기묘한 압박감을 느꼈으나,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그 감정을 억눌렀다. 먼지 더미 속에서 아직 온전한 상태인 통 하나를 찾아낸 그는, 탈출할 때 디딤돌로 삼기 위해 그것을 열린 창문 쪽으로 굴려 놓았다. 그러고는 마음을 다잡은 뒤, 거미줄이 장식처럼 늘어진 넓은 공간을 가로질러 아치형 통로를 향해 나아갔다. 사방에 가득한 먼지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유령 같은 거미줄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어둠 속으로 솟아오른 닳아빠진 돌계단에 손을 뻗어 오르기 시작했다. 빛이 없었기에 그는 손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발을 뗐다. 급하게 꺾인 길 끝에서 앞쪽에 닫힌 문이 만져졌고, 손을 더듬어 더듬은 끝에 오래된 문고리를 찾아냈다. 문은 안쪽으로 열렸다. 문 너머로 벌레가 파먹은 판벽이 늘어선, 희미한 빛이 감도는 복도가 나타났다.

* * * * *

1층에 들어선 블레이크는 서둘러 내부를 살피기 시작했다. 안쪽의 모든 문은 잠겨 있지 않았기에, 그는 방과 방 사이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거대한 예배당 중앙 홀은 기괴하기 짝이 없는 공간이었다. 상자형 예배석과 제단, 모래시계가 놓인 설교단, 그리고 음향 반사판 위로는 먼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눈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갤러리의 뾰족한 아치 사이로는 거대한 거미줄이 밧줄처럼 늘어져 있었고, 그것들은 고딕 양식의 기둥들을 칭칭 휘감고 있었다. 저무는 오후의 햇살이 거대한 반원형 창문의 검게 변한 유리창을 통과해 들어오자, 이 고요한 황폐함 위로 끔찍하고 납빛 같은 빛이 일렁였다.

창문에 그려진 그림들은 그을음이 너무 두껍게 내려앉아 블레이크가 무엇을 묘사한 것인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간신히 형체를 파악해 본 결과, 그는 그 그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문양들은 대체로 전형적인 형태였으나, 모호한 상징물들에 해박했던 블레이크는 그 고대의 패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묘사된 몇 안 되는 성인들은 하나같이 분명 비판의 여지가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어떤 창문은 그저 어두운 공간 속에 기묘하게 빛나는 나선형 무늬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했다. 창문에

서 고개를 돌리던 블레이크는 제단 위에 놓인 거미줄 친 십자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평범한 십자가가 아니었다. 마치 그림자 가득한 이집트의 원시적인 앙크, 즉 크룩스 안사타를 닮아 있었다.

블레이크는 앱스(apse) 옆에 딸린 뒤쪽 성무실에서 썩어가는 책상 하나와 천장까지 닿은 선반을 발견했다. 선반에는 곰팡이가 슬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책들이 가득했다. 그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실재하는 공포에 휩싸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책들의 제목이 그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그 책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들어본 적조차 없거나, 혹은 은밀하고 겁에 질린 속삭임 속에서나 겨우 접했을 법한 검고 금기시된 것들이었다. 인류의 유년기 시절부터, 아니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아득하고 신화적인 시대로부터 시간의 흐름을 타고 흘러 내려온, 모호한 비밀과 태고의 주문들을 담은 금지되고 두려운 저장고였다.

블레이크 자신도 그중 많은 책을 읽은 적이 있었다. 혐오스러운 《네크로노미콘》의 라틴어 판본을 비롯해, 불길한 《리베르 이보니스》, 콩트 데를레트의 악명 높은 《컬트 데 굴》, 폰 준츠의 《우나우스프레클리헨 쿨텐》, 그리고 노(老) 루드비히 프린의 지옥 같은 《데 베르미스 미스테리이스》 같은 책들 말이다. 하지만 이름만 들어봤거나 아예 알지도 못하는 책들도 있었다. 《프나코틱 필사본》과 《즈얀의 서》,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문자로 가득해 바스러져 가는 한 권의 책이 그러했다. 다만 그 책에는 오컬트 연구자라면 소름 끼칠 정도로 알아볼 수 있는 특정한 상징과 도해들이 그려져 있었다.

지역에 떠도는 소문은 분명 거짓이 아니었다. 이곳은 한때 인류보다 오래되었고, 알려진 우주보다 더 광활한 악의 근거지였다.

폐허가 된 책상 안에는 가죽으로 제본된 작은 기록장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기묘한 암호 체계로 쓰인 기록들이 가득했다. 원고에 쓰인 기호들은 오늘날 천문학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상징들이나, 고대의 연금술, 점성술, 그리고 그 외의 수상쩍은 술법들에서 사용되던 전통적인 기호들이었다. 태양과 달, 행성, 각도, 그리고 황도십이궁을 나타내는 문양들이 페이지마다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문단과 단락이 나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각 기호는 특정한 알파벳 글자에 대응하는 듯했다.

블레이크는 나중에 암호를 풀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을 코트 주머니에 넣어 챙겼다. 서가에 꽂힌 수많은 거대한 고서들은 형언할 수 없는 매력으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는 언젠가 이 책들을 빌려 읽고 싶다는 유혹을 느꼈다. 그는 이 책들이 어떻게 이토록 오랫동안 아무런 방해 없이 남아 있을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지난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버려진 장소를 방문객들로부터 지켜온, 그 끈질기고도 스며드는 공포를 정복한 사람이 과연 자신이 처음일까?

1층을 샅샅이 뒤진 블레이크는 유령 같은 성당의 중앙 통로에 쌓인 먼지를 헤치며 다시 앞쪽 현관으로 나아갔다. 그곳에는 검게 변한 탑과 첨탑으로 이어지는 듯한 문과 계단이 있었다. 멀리서 오랫동안 눈에 익혔던 구조물들이었다. 계단을 오르는 일은 숨이 막힐 듯 고통스러웠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좁은 공간이라 거미들이 온갖 집을 지

어놓은 탓이었다. 계단은 높고 좁은 나무 발판이 이어진 나선형 구조였으며, 블레이크는 가끔 어지러울 정도로 도시를 내려다보게 하는 흐릿한 창문을 지나쳤다. 아래쪽에서 밧줄 같은 것은 보지 못했지만, 그는 탑 안에 종이나 종소리가 울릴 종들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망원경으로 수없이 관찰했던, 좁고 루버 창살이 달린 첨탑의 창문들을 떠올리며 말이다. 하지만 그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계단 끝에 다다랐을 때 마주한 탑의 방에는 종이 단 하나도 없었으며, 그곳은 분명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공간이었다.

*****

방은 가로세로 약 15피트 정도의 크기였다. 사방 벽에 하나씩 난 네 개의 뾰족한 창문에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는데, 이 창문들은 썩어가는 루버 판자 가림막 안쪽에 유리가 끼워져 있었다. 그 위에는 빛을 차단하는 불투명한 가림막이 덧대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대부분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방 한가운데에는 높이 약 4피트, 평균 지름 2피트 정도 되는 기묘한 각도의 돌기둥이 솟아 있었다. 기둥의 각 면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하고 투박한 상형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기둥 위에는 비대칭의 독특한 형태를 한 금속 상자가 놓여 있었다. 경첩이 달린 뚜껑은 뒤로 젖혀져 있었고, 십 년은 족히 쌓였을 법한 먼지 아래로는 지름 4인치 정도의 달걀 모양 혹은 불규칙한 구형의 물체가 보였다.

기둥을 중심으로 거친 원을 그리듯 등받이가 높은 고딕 양식의 의자 일곱 개가 놓여 있었는데, 다행히 형태는 거의 온전했다. 의자 뒤편, 어두운 패널 벽을 따라서는 검은색 페인트를 칠한 거대한 석고상 일곱 개가 늘어서 있었다. 부서져 가는 이 석상들은 신비로운 이스터 섬의 기묘한 거석상들을 떠올리게 했다. 거미줄이 가득한 방 한쪽 구석에는 벽에 붙은 사다리가 있었는데, 이는 창문 하나 없는 위층 첨탑의 닫힌 트랩도어로 이어지고 있었다.

블레이크는 희미한 빛에 눈이 익숙해질 무렵, 황색 금속으로 된 기묘한 상자 위로 돋아난 이상한 부조들을 발견했다. 그는 상자로 다가가 손과 손수건으로 먼지를 털어냈다. 그러자 그 형상들이 드러났다. 그것들은 괴물 같으면서도 지극히 이질적인 모습이었다. 마치 살아있는 듯 보였으나, 이 행성에서 진화한 그 어떤 생명체와도 닮지 않은 존재들이었다.

4인치 크기의 구체처럼 보이던 물체는 사실 검은색에 가까운, 붉은 줄무늬가 그어진 다면체였다. 불규칙한 평면들이 수없이 얽힌 그 물체는 매우 특이한 결정체이거나, 혹은 정교하게 깎고 연마한 광물로 만든 인공물 같았다. 다면체는 상자 바닥에 닿아 있지 않았다. 대신 중심을 가로지르는 금속 띠에 매달려 공중에 떠 있었는데, 일곱 개의 기묘한 지지대가 상자 안쪽 벽 상단 모서리 방향으로 수평하게 뻗어 있었다.

그 돌이 모습을 드러내자, 블레이크는 공포스러울 정도의 매혹에 사로잡혔다. 그는 눈을 뗄 수 없었다. 번뜩이는 표면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치 그것이 투명한 것처럼 느껴지며 그 안에는 경이로운 미완의 세계

들이 들어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돌탑이 솟아 있는 외계의 행성들이 떠올랐다. 또 어떤 행성은 거대한 산맥만이 있을 뿐 생명의 흔적이라곤 전혀 없었다. 더 먼 우주에는 그저 막연한 어둠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움직임만이 존재하여, 그곳에 의식과 의지가 깃들어 있음을 암시할 뿐이었다.

시선을 돌렸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첨탑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근처, 구석진 곳에 쌓인 기묘한 먼지 더미였다. 왜 하필 그것이 눈길을 끌었는지 알 수 없었으나, 그 형태 속에 담긴 무언가가 무의식중에 불길한 메시지를 전해왔다. 블레이크는 먼지 더미를 향해 다가갔다. 길을 가로막는 거미줄을 헤치며 나아갈수록, 그는 그 형체에서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손과 손수건으로 먼지를 털어내자 곧 진실이 드러났고, 블레이크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사람의 유골이었으며, 아주 오랜 시간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음이 분명했다. 옷가지들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으나, 남은 단추와 천 조각들을 통해 그것이 남자의 회색 양복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증거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신발과 금속 버클, 소매 끝에 달렸던 커다란 단추들, 이제는 사라진 형태의 스틱핀, 옛 '프로비던스 텔레그램'지의 이름이 새겨진 기자증, 그리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삭아버린 가죽 수첩까지 발견되었다. 블레이크는 수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 안에는 지금은 쓰이지 않는 옛날 지폐 몇 장과 1893년도 광고가 적힌 셀룰로이드 달력, '에드윈 M. 릴리브리지'라는 이름이 적힌 카드들, 그리고 연필로 메모가 가득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 종이에는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 가득했다. 블레이크는 서쪽 창가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아래에서 그 글들을 주의 깊게 읽어 내려갔다. 문맥이 끊겨 갈피를 잡기 어려운 글 속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에녹 보웬 교수는 1844년 5월 이집트에서 귀국했다. 그는 그해 7월에 오래된 프리윌 교회를 매입했다. 그의 고고학적 업적과 오컬트에 관한 연구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1844년 12월 29일, 제4 침례교회의 드로운 박사가 설교를 통해 '별의 지혜'에 대해 경고하다."

"45년 말까지 신도 수 97명."

"1846년—세 건의 실종 사건—빛나는 트래퍼조헤드론이 처음 언급됨."

"1848년, 7명의 실종자 발생——피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1853년의 조사 결과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그저 정체 모를 소리에 관한 이야기들만 남았을 뿐이다.

"오말리 신부는 이집트의 거대한 유적에서 발견된 상자를 이용한 악마 숭배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상자는 빛 속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무언가를 불러낸다고 한다. 그 존재는 아주 작은 빛만 보아도 달아나며, 강한 빛 앞에서는 쫓겨나고 만다. 그러고 나면 다시 불러내야만

한다. 아마도 이 내용은 1849년에 '별의 지혜'에 가입했던 프랜시스 X. 피니가 임종 직전에 남긴 고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빛나는 트래퍼조헤드론은 천국과 다른 세계들을 보여주며, 어둠 속을 떠도는 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에게 비밀을 알려준다고 한다."

"1857년 오린 B. 에디의 이야기. 그들은 수정(crystal)을 응시함으로써 그것을 불러내며,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언어를 사용한다."

"1863년 당시 회중은 200명 이상이었으며, 전선에 나간 남자들은 제외한 수치다."

1869년, 패트릭 리건이 실종된 후 아일랜드 소년들이 교회를 에워싸고 몰려들었다.

"1872년 3월 14일 자 J.지에 베일에 싸인 기사가 실렸으나, 사람들은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1876년, 6건의 실종 사건 발생 — 비밀 위원회가 도일 시장을 찾아가다."

"1877년 2월에 조치가 약속되었으나, 4월에 교회가 폐쇄됨."

"5월, 페더럴 힐의 청년 조직인 '페더럴 힐 보이즈'가 ---- 박사와 교회 위원들을 협박함."

"77년이 끝나기 전 181명이 도시를 떠났다. 이름은 언급하지 않는다."

"유령 이야기는 1880년경부터 시작되었다. 1877년 이후로는 그 어떤 인간도 교회에 발을 들인 적이 없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

"1851년에 촬영된 그곳의 사진을 래니건에게 요청할 것……."

* * * * *

블레이크는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코트 안쪽으로 밀어 넣은 뒤, 먼지 속에 놓인 해골을 내려다보았다. 남겨진 기록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했다. 이 남자는 42년 전, 다른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자극적인 기사를 쫓아 이 버려진 건물로 찾아왔음이 틀림없었다. 어쩌면 그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사실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분명한 건 그가 신문사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사실뿐이었다. 용기를 내어 억눌러 보려 했던 공포가 결국 그를 압도하여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일까?

블레이크는 번뜩이는 뼈 위로 몸을 굽히며 그 기이한 상태를 살폈다. 뼈 중 일부는 심하게 흩어져 있었고, 몇몇은 끝부분이 기묘하게 녹아내린 듯한 모습이었다. 또 다른 뼈들은 이상하리만큼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으며, 마치 불에 탄 듯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옷가지 조각들 중 일부에서도 이런 그을린 흔적이 발견되었다. 해골의 상태는 더욱 기이했다. 노랗게 얼룩진 두개골 꼭대기에는 마치 강력한 산성 물

질이 단단한 뼈를 녹여버린 듯, 검게 탄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곳에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요히 매장되어 있던 해골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블레이크로서는 도저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삽화: 그는 신문 기삿거리를 찾아 버려진 건물로 향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는 다시 그 돌을 바라보고 있었다. 돌이 뿜어내는 기묘한 영향력에 이끌려, 그의 마음속에는 형체 없는 환영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인간의 형상이라 볼 수 없는, 후드를 눌러쓴 로브 차림의 무리가 행렬을 지어 지나갔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조각된 단일 석주들이 끝없이 늘어선 사막의 풍경도 보였다. 심해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는 탑과 성벽이 잠겨 있었고, 차가운 보랏빛 안개가 희미하게 일렁이는 공간에는 검은 안개 줄기들이 소용돌이치며 떠다녔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너머로, 그는 끝을 알 수 없는 순수한 어둠의 심연을 엿보았다. 그곳에서는 고체나 반고체의 형체들이 오직 바람 같은 움직임으로만 그 존재를 드러낼 뿐이었다. 구름처럼 일렁이는 힘의 문양들이 혼돈 위에 질서를 덧씌우고 있었으며, 우리가 아는 세상의 모든 역설과 신비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듯 보였다.

그때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갉아먹는 듯한 공포가 몰려오며 주문이 깨진 듯 정신이 아득해졌다. 블레이크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끼며 돌로부터 고개를 돌렸다. 형체 없는 이질적인 존재가 바로 곁에서 끔찍할 정도로 집요하게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감각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는 무언가에 얽매여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돌을 매개 삼아 자신을 꿰뚫어 본 무언가였다. 물리적

인 시선과는 다른 방식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추적할 무언가였다. 분명히 이 장소는 그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있었다. 그가 발견한 소름 끼치는 물건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다. 빛도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다. 별도의 조명도 없었기에, 그는 곧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던 그때, 블레이크는 기괴한 각도로 뒤틀린 돌에서 희미한 빛의 흔적을 본 듯했다. 그는 시선을 돌리려 애썼으나, 알 수 없는 강박에 이끌려 자꾸만 눈길이 그곳으로 향했다. 저 물체 주위로 방사능 같은 미세한 인광이 감도는 것일까? 죽은 자의 기록에는 '빛나는 트래퍼조헤드론'에 관해 무엇이라 적혀 있었던가? 도대체 이 버려진 은신처는 우주적 악이 깃든 어떤 곳이란 말인가?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새들조차 외면한 저 어둠 속에는 여전히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 어디선가 불쾌한 악취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듯했으나, 그 근원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블레이크는 오랫동안 열려 있던 상자의 덮개를 움켜쥐고 거칠게 닫아버렸다. 상자는 이질적인 경첩을 따라 매끄럽게 움직였고, 분명히 빛을 내뿜던 돌을 완전히 덮어 가두었다.

문이 닫히는 날카로운 클릭 소리가 들리자, 머리 위 트랩도어 너머 첨탑의 영원한 어둠 속에서 무언가 부드럽게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의심할 여지 없는 쥐의 움직임이었다. 그가 이 저주받은 건물에 발을 들인 이후, 생명의 존재를 드러낸 것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그럼에도 첨탑에서 들려온 그 부스럭거림은 그를 지독하게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는 거의 미친 듯이 나선형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기괴한 분위기

가 감도는 신랑을 가로질러 아치형 지하실로, 다시 황혼이 깃드는 적막한 광장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공포에 질린 이들이 가득한 페더럴 힐의 골목과 대로를 지나, 마침내 이성이 살아 숨 쉬는 중심가와 대학가의 정겨운 벽돌 보도로 필사적으로 달려 나갔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블레이크는 자신의 탐험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특정 서적들을 탐독했고, 시내에 있는 신문 보관소에서 수년 치의 신문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다. 또한 거미줄이 가득한 교회 부속실에서 가져온 그 가죽 양장본에 담긴 암호를 풀기 위해 광적으로 매달렸다.

그는 곧 그 암호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오랜 시간 공을 들인 끝에, 그는 이 암호의 언어가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혹은 독일어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분명 그가 가진 기묘한 박식함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헤쳐야만 할 터였다.

매일 저녁이면 서쪽을 바라보던 오래된 충동이 되살아났다. 멀리 떨어진, 마치 전설 속의 세계처럼 보이는 뾰족한 지붕들 사이로 옛날에 보았던 그 검은 첨탑이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 첨탑은 그에게 새로운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는 그 첨탑이 숨기고 있는 사악한 지식의 유산을 알고 있었고, 그 지식 때문에 환영은 기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날뛰기 시작했다.

봄철의 새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노을을 등지고 날아가는 새들을 지켜보며, 그는 새들이 이전과는 달리 그 초라하고 외로운 첨탑을 필사적

으로 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새 떼가 그 근처로 다가갈 때면, 놈들은 공포에 질려 혼란스럽게 방향을 틀며 흩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수 마일 떨어진 곳에서부터 들려오지 않는, 새들의 그 격렬한 지저귐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 * * * *

블레이크의 일기에 따르면, 그가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한 것은 6월이었다. 그는 그 텍스트가 고대의 사악한 이교도들이 사용하는 어두운 아클로(Aklo)어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블레이크는 이전 연구를 통해 이 언어를 어설프게나마 익힌 상태였다. 일기에는 블레이크가 무엇을 해독했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기묘한 침묵을 지키지만, 해독 결과에 경악하며 당혹스러워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드러난다.

일기에는 빛나는 트래퍼조헤드론을 들여다봄으로써 깨어난 '어둠 속을 떠도는 자'에 관한 언급이 등장한다. 또한 그 존재가 불려 나온 근원인 혼돈의 검은 심연에 대해 광기 어린 추측을 늘어놓기도 한다. 일기는 그 존재가 모든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괴물 같은 희생을 요구한다고 서술한다. 블레이크의 기록 중 일부에는 그 존재를 마치 자신이 불러낸 것처럼 여기며, 그것이 세상 밖으로 기어 나와 배회할까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인다. 다만 그는 가로등 불빛이 일종의 방벽이 되어 그 존재가 결코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빛나는 트래퍼조헤드론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그는 이 물건을 모든 시간과 공간을 들여다보는 창이라 불렀다. 또한 이 물건의 역

사가 고대 존재들이 지구로 가져오기 전, 어두운 유고스에서 만들어졌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도 상세히 기술했다.

이 물건은 남극의 크리노이드 생명체들에 의해 소중히 보관되었고, 그들이 남긴 유적 속 기이한 상자에 담겨 있었다. 이후 발루시아의 뱀 인간들이 유적에서 이를 건져 올렸으며, 영겁의 시간이 흐른 뒤 레무리아의 인류가 이 물건을 들여다보았다. 빛나는 트래퍼조헤드론은 기이한 땅과 그보다 더 기이한 바다를 건너 다녔다. 아틀란티스가 침몰할 때 함께 가라앉기도 했으나, 결국 미노아의 한 어부가 그물로 건져 올렸고, 어두운 켐에서 온 검은 피부의 상인들에게 팔려 갔다.

파라오 네프렌-카는 이 물건을 중심으로 창문 하나 없는 지하 묘실을 갖춘 신전을 세웠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름이 모든 기념비와 기록에서 말살될 만큼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그 후 빛나는 트래퍼조헤드론은 사제들과 새로운 파라오가 파괴한 사악한 신전의 폐허 속에서 잠들었다. 그러다 언젠가 한 발굴자의 삽 끝에 다시금 드러나 인류에게 저주를 내리게 된 것이다.

7월 초, 신문 기사들은 블레이크의 일기 내용에 기묘한 보충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그 내용이 워낙 짧고 대수롭지 않게 다뤄진 탓에, 일기 덕분에 겨우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을 뿐이다. 그 내용에 따르면, 그 공포스러운 교회에 낯선 이가 발을 들인 이후로 페더럴 힐에는 새로운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탈리아계 주민들은 창문 하나 없는 어두운 첨탑 안에서 평소와 다른 움직임과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린다고 속삭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괴롭히

는 존재를 쫓아내 달라고 신부들에게 간청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무언가가 문가에 붙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만큼 어둠이 충분히 짙어졌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있다고 했다. 신문 기사들은 지역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미신을 언급하긴 했으나, 이 공포가 시작된 초기 배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요즘 젊은 기자들이 고고학적 식견을 갖춘 이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자명했다.

블레이크는 일기에 이 사건들을 기록하며 기묘한 후회를 드러냈다. 그는 빛나는 트래퍼조헤드론을 매장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그 흉측하게 돌출된 첨탑 안으로 햇빛을 들여보냄으로써 자신이 불러낸 존재를 몰아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이 가진 매혹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보여주었다. 그는 꿈속에서조차 그 저주받은 탑을 방문하고 싶어 하며, 빛나는 돌이 품은 우주의 비밀을 다시 한번 응시하고 싶다는 병적인 갈망을 품고 있다고 고백했다.

7월 17일 아침, 《저널》지에 실린 어떤 기사가 일기 기록자를 진정한 공포의 열병 속으로 몰아넣었다. 페더럴 힐의 불안한 분위기에 대해 적힌, 그간의 반농담조의 기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으나 블레이크에게는 그것이 무척이나 끔찍하게 다가왔다. 그날 밤, 뇌우로 인해 도시의 조명 시스템이 한 시간 동안이나 마비되었는데, 그 암흑의 시간 동안 이탈리아인들은 공포에 질려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저주받은 교회 근처에 살던 이들은, 첨탑에 있던 '그것'이 가로등이 꺼진 틈을 타 교회 내부로 내려왔다고 맹세했다. 그것은 끈적거리고 형언할 수 없이 기괴한 모습으로 몸을 퍼덕이며 여기저기 부딪히며 돌아다녔다고 했다. 마지막에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탑 쪽으로 그것이 부

딪히며 올라갔다는 기록도 있었다. 그것은 어둠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지만, 빛이 비치면 언제나 도망치고 말았다.

전류가 다시 타오르며 빛이 들어왔을 때, 탑 안에서는 충격적인 소란이 일어났다. 때가 타 검게 변한 루버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그 미약한 빛조차, 그 존재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자극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두컴컴한 첨탑 꼭대기로 몸을 부딪치고 미끄러지듯 기어 올라가 겨우 몸을 숨겼다. 만약 빛이 오랫동안 비추었더라면, 미친 이방인이 불러낸 그 심연 속으로 다시 쫓겨갔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둠이 깔린 시간 동안, 빗속에서 기도하는 군중이 교회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촛불을 켜고, 종이를 접거나 우산을 받쳐 빛을 가린 등불을 들고 있었다. 어둠 속을 배회하는 악몽으로부터 도시를 구하려는 빛의 파수꾼들이었다. 교회와 가장 가까이 있던 이들의 말에 따르면, 한때 바깥쪽 문이 끔찍한 소리를 내며 덜컹거렸다고 한다.

하지만 최악은 이것조차 아니었다. 그날 저녁, 블레이크는 《불레틴》지를 통해 기자들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읽게 된다. 공포에 질린 이탈리아인 군중을 피해, 기자 두 명은 마침내 이 기괴한 소동을 기삿거리로 삼기로 마음먹고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문을 열려고 애를 써보았으나 소용없자, 결국 지하실 창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기자들이 발견한 현장은 기이했다. 현관과 유령 같은 성당 내부의 먼지는 무언가에 헤집어진 듯 뒤섞여 있었고, 썩어버린 쿠션 조각과 새틴 소재의 예배석 안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사방에서는 악취가

진동했으며, 곳곳에는 노란 얼룩과 무언가 타버린 듯한 흔적이 점점이 남아 있었다. 기자들은 탑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러다 위쪽에서 무언가 긁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잠시 멈칫하기도 했으나, 곧 좁은 나선형 계단이 거칠게 닦여 깨끗해진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다.

탑 내부의 상태도 그와 비슷하게 대충 쓸어낸 듯한 모습이었다. 기록에는 칠각형의 돌기둥과 뒤집힌 고딕 양식의 의자들, 그리고 기괴한 석고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금속 상자와 훼손된 오래된 해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얼룩과 그을음, 그리고 악취의 흔적을 제외하고 블레이크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왜 났는지를 설명해 주는 마지막 단서였다.

탑에 달린 뾰족한 아치형 창문들은 모조리 깨져 있었다. 그중 두 개의 창문은 외부의 경사진 루버 사이 틈새에 새틴 천 조각과 쿠션용 말총을 쑤셔 넣어, 서둘러 조잡하게 가려둔 상태였다. 새로 쓸어낸 바닥 여기저기에는 새틴 파편과 말총 뭉치들이 흩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이 탑을 예전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가두려던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된 것만 같았다.

창문 하나 없는 첨탑으로 이어지는 사다리에는 누런 얼룩과 검게 그을린 자국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한 기자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로로 미닫는 형태의 덧문을 열고, 희미한 손전등 불빛을 그 어둡고 기묘하게 악취 나는 공간 안으로 비추었을 때, 그가 본 것이라고는 오직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저 입구 근처에 형태를 알 수 없는 파편들이 뒤섞여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물론 사람들의 결론은 사기극이라는 것이었다. 누군가 미신을 믿는 언덕 마을 사람들에게 장난을 친 것이거나, 혹은 어떤 광신도가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공포심을 부추기려 했을 것이라 보았다. 어쩌면 더 젊고 세련된 마을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상대로 정교한 속임수를 꾸몄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경찰이 보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을 파견했을 때는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세 명의 경찰관이 차례로 임무를 회피할 방법을 찾아냈고, 네 번째로 파견된 경찰관은 아주 마지못해 갔다가 금세 돌아왔다. 그는 기자들이 보고한 내용에 단 한 마디의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 * * * *

이 지점부터 블레이크의 일기에는 불길한 공포와 신경질적인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들기 시작한다. 그는 무언가를 제때 하지 못했다며 스스로를 질책하고, 전력이 또다시 끊겼을 때 닥쳐올 결과에 대해 걷잡을 수 없는 추측을 늘어놓는다. 실제로 뇌우가 몰아치던 세 차례의 날에, 그는 전력 회사에 전화를 걸어 광분한 상태로 정전 사태에 대비한 절박한 예방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일기 곳곳에는 기자들이 어두컴컴한 탑의 방을 수색했음에도 금속 상자와 돌, 그리고 기이하게 훼손된 오래된 유골을 찾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가 나타난다. 블레이크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것들을 치워버렸으리라 짐작했지만, 그것들이 어디로, 누구 혹은 무엇에 의해 옮겨졌는지는 그저 추측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공포였다. 그는 자신의 정신과 저 멀리 첨탑 속에 도사린 공포 사이에 불경한 유대감이 존재한다고 느꼈다. 그 공포란, 블레이크의 경솔한 행동이 궁극의 암흑 공간으로부터 불러내고 만 밤의 괴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가 끊임없이 무언가에 끌려가고 있다고 느끼는 듯했다. 당시 그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블레이크가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도시의 소용돌이치는 연기 너머로 첨탑이 삐죽삐죽 솟은 저 멀리 언덕을 서쪽 창밖으로 응시하곤 했다고 기억한다.

일기에는 어떤 끔찍한 꿈들에 대한 내용과, 잠결에 그 불경한 유대감이 더욱 강해진다는 이야기가 단조롭게 반복된다. 어느 날 밤에는 잠에서 깨어보니 옷을 다 갖춰 입은 채 야외에 서 있었고,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 컬리지 힐을 따라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그는 첨탑 속의 존재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기록하고 있다.

7월 30일 이후의 일주일은 블레이크의 정신이 부분적으로 무너져 내린 시기로 기억된다. 그는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았고, 모든 음식은 전화로 주문했다. 방문객들은 그가 침대 근처에 늘어뜨려 놓은 줄들을 보고 의아해했다. 블레이크의 말에 따르면, 몽유병 때문에 매일 밤 발목을 매듭으로 묶어야만 했다고 한다. 매듭이 풀리지 않게 단단히 묶어 두거나, 아니면 매듭을 푸느라 애를 쓰다 잠에서 깨어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는 일기에서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은 그 끔찍한 경험에 대해 기록했다. 30일 밤, 잠자리에 들었던 그는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길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희미하고 짧게 그어진 푸르스름한 빛줄기뿐이었다. 하지만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고, 머리 위에서는 기묘하게 뒤섞인 부드럽고 은밀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무언가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그때마다 머리 위에서는 응답하듯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나무와 나무가 조심스럽게 맞물리며 미끄러지는 소리와 뒤섞인, 모호한 움직임이었다.

더듬거리는 손길이 윗부분이 텅 빈 돌기둥에 닿기도 했고, 뒤이어 벽에 박힌 사다리 가로대를 움켜쥐기도 했다. 그는 불안정한 몸짓으로 위를 향해 더듬더듬 나아갔다. 위로 올라갈수록 악취는 더욱 짙어졌고, 뜨겁고 타는 듯한 돌풍이 그를 덮쳤다. 눈앞에는 환상적인 형상들이 만화경처럼 어지럽게 펼쳐졌으나, 이내 그 형상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다. 대신 그 자리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밤의 심연이 나타났다. 그 심연 속에서는 태양과 더 깊은 어둠에 잠긴 세계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태고의 전설 속 '궁극의 혼돈'을 떠올렸다. 그 혼돈의 중심에는 만물의 주인이자 눈먼 백치 신인 아자토스가 누워 있었다. 아자토스는 형체도 없고 지능도 없는 무수한 무용수들에게 둘러싸인 채, 이름 모를 손들이 연주하는 단조롭고 가냘픈 악마의 피리 소리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때 외부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파열음이 그의 망연자실한 정신을 깨뜨렸다. 그 소리는 그가 처한 형언할 수 없는 공포를 일깨웠다. 그것

이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알 길이 없다. 아마도 페더럴 힐에서 들려오던 불꽃놀이 소리 중 뒤늦게 울려 퍼진 잔향이었을지도 모른다. 주민들이 각자의 수호성인이나, 혹은 이탈리아 고향 마을의 성인들을 기리며 여름 내내 터뜨리던 그 소리 말이다. 어찌 되었든 그는 비명을 내지르며 사다리에서 미친 듯이 떨어졌다. 그리고는 빛조차 거의 들지 않는 방 안,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린 바닥을 더듬으며 눈먼 채 비틀거렸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즉각 깨달았다. 그는 앞뒤 가리지 않고 좁고 나선형인 계단을 따라 아래로 뛰어 내려갔다. 굽이치는 계단마다 발이 헛돌아 넘어지고 몸 곳곳에 멍이 들었다.

이어지는 과정은 악몽 같았다. 거대한 거미줄이 뒤덮인 성당의 신랑을 가로질러 달렸다. 유령 같은 아치형 천장은 비웃는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높은 곳까지 뻗어 있었다. 잡동사니가 널브러진 지하실을 눈먼 채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왔고, 다시 외부의 공기와 가로등 불빛이 있는 곳까지 기어올랐다. 그러고는 기괴한 박공지붕들이 웅성거리는 듯한 유령 같은 언덕을 미친 듯이 내달렸다. 검고 높은 탑들이 늘어선 음산하고 고요한 도시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가파르게 솟은 절벽을 타고 올라가 마침내 자신의 오래된 집 문 앞에 다다랐다.

아침에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옷을 입은 채로 서재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몸은 흙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온몸 구석구석이 멍든 듯 쓰라렸다. 거울을 마주하자 머리카락은 심하게 그을려 있었고, 겉옷에는 정체 모를 불길한 악취가 배어 있는 듯했다. 그 순간, 그의 정신은 무너져 내렸다. 그 후로 그는 며칠 동안 가운 차림으

로 기진맥진해 누워 지냈다. 서쪽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거나, 천둥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을 떨며, 일기장에 광기 어린 글들을 휘갈겨 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

8월 8일 자정 직전,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다. 도시 곳곳에 번개가 연달아 내리쳤고, 기이한 불덩어리가 두 차례 목격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으며, 끊임없이 이어지는 천둥소리는 수천 명의 잠을 앗아갔다. 블레이크는 낙뢰로 인해 전기 시스템이 망가질까 봐 극도로 불안해했다. 그는 새벽 1시쯤 회사에 전화를 걸려 시도했으나, 이미 안전을 위해 전력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된 상태였다. 그는 일기에 이 모든 상황을 기록했다. 크고 신경질적이며 종종 알아보기조차 힘든 그의 글자들은, 점점 깊어지는 광기와 절망,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눈이 멀 듯 휘갈겨 쓴 기록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기 위해 집 안의 불을 꺼두어야만 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보낸 듯했다. 빗줄기 너머로 번뜩이는 도심의 지붕들을 지나, 멀리 페더럴 힐을 수놓은 빛의 성좌를 불안한 눈빛으로 응시하며 말이다. 때때로 그는 서투른 손길로 일기를 적어 내려갔다. 그 일기장 두 페이지에는 "불빛이 꺼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그것을 파괴해야만 한다", "그것이 나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아닐지도 모른다"와 같은 단편적인 문장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도시 전역의 불빛이 일시에 꺼졌다. 발전소 기록에 따르면 새벽 2시 12분에 일어난 일이었으나, 블레이크의 일기에는 정확한 시간이 적혀 있지 않았다. 일기에는 그저 이렇게 적혀 있을 뿐이었다. "불이 꺼졌다. 신이시여, 저를 도우소서."

페더럴 힐에는 블레이크만큼이나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다. 비에 젖은 사내들이 무리를 지어 사악한 교회를 둘러싼 광장과 골목을 배회했다. 그들은 우산으로 가린 촛불과 전기 손전등, 기름 등불을 들고 있었으며, 십자가와 남부 이탈리아에서 흔히 쓰이는 온갖 기괴한 부적들을 지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번개가 칠 때마다 축복을 빌었고, 폭풍의 흐름이 바뀌어 번갯불이 잦아들다 마침내 완전히 멈추자 오른손으로 공포에 질린 듯 알 수 없는 표식들을 그려댔다.

거세게 불어닥친 바람에 촛불 대부분이 꺼지면서, 현장은 위협적일 만큼 어둠에 잠겼다. 누군가 스피리토 산토 교회의 메를루초 신부를 깨웠고, 신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말을 전하기 위해 그 음산한 광장으로 서둘러 달려갔다. 칠흑 같은 탑 안에서 들려오는 그 불안하고 기괴한 소리들에 대해서는, 그 무엇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새벽 2시 35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몇 가지 증언을 확보할 수 있다. 우선 젊고 지적이며 교육 수준도 높은 신부의 증언이 있다. 중앙 경찰서 소속의 윌리엄 J. 모나한 순경의 증언도 있다. 그는 순찰 구역 중 인파가 몰린 곳을 살피기 위해 잠시 멈춰 섰던, 매우 신뢰할 만한 경찰관이다. 또한 교회 주변의 높은 옹벽 근처에 모여 있던 78명의 남성

대부분, 특히 동쪽 정면이 잘 보이는 광장에 있던 이들의 증언도 확보했다.

물론 이 사건이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 일이라고 증명할 방법은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얼마든지 있다. 온갖 잡동사니가 뒤섞인 채, 공기도 통하지 않는 거대하고 오래된 폐건물 안에서 어떤 모호한 화학 반응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독한 가스나 자연 발화, 혹은 오랜 부패로 인해 발생한 가스 압력 등 수많은 현상 중 무엇이 원인이었을지 모른다. 물론 의도적인 사기극이었을 가능성 또한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사건 자체는 사실 매우 단순했으며, 실제 소요 시간도 3분이 채 되지 않았다. 평소 매사에 정확한 성격이었던 메를루초 신부는 사건 당시 자신의 시계를 반복해서 확인했다.

검은 탑 안에서 둔탁하고 더듬거리는 듯한 소리가 점차 커지며 시작되었다. 한동안 교회에서는 기묘하고 사악한 악취가 희미하게 풍겨 나왔으나, 이제 그 냄새는 노골적이고 불쾌할 정도로 진해졌다. 마침내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험상궂게 내려다보는 동쪽 외벽 아래 마당으로 크고 무거운 물체가 굉음을 내며 떨어졌다. 촛불마저 타오르지 않아 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떨어지는 물체가 지면에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그것이 탑의 동쪽 창문에 달려 있던, 그을음 가득한 루버 판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직후, 보이지 않는 높은 곳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악취가 치밀어 올랐다. 그 역겨운 냄새는 떨고 있는 구경꾼들의 숨을 막히게 했고, 광

장에 모인 이들을 거의 실신할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동시에 공기는 마치 거대한 날갯짓을 하는 듯한 진동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이전의 그 어떤 돌풍보다도 격렬한 동풍이 갑자기 몰아쳤다. 바람은 사람들의 모자를 낚아채 가고, 비에 젖은 우산들을 거칠게 휘둘러 젖혔다. 촛불 하나 없는 밤이라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으나, 위를 올려다보던 몇몇 사람들은 칠흑 같은 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하고 짙은 어둠의 형체가 번져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것은 마치 형체 없는 연기 구름 같았으며, 유성처럼 빠른 속도로 동쪽을 향해 쏘아져 나갔다.

그게 전부였다. 지켜보던 이들은 공포와 경외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불쾌감에 짓눌려 몸이 반쯤 마비된 상태였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니,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었기에, 그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다 잠시 후, 뒤늦게 터져 나온 날카로운 번갯불이 하늘을 가르며 쏟아졌고, 뒤이어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이 폭우가 쏟아지는 하늘을 갈라놓았다. 사람들은 그 순간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30분 뒤에 비가 그쳤고, 다시 15분이 지나 가로등이 켜지자, 지치고 젖은 몸의 감시자들은 안도하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

다음 날 신문들은 일반적인 폭풍 소식을 전하며 이 사건들을 아주 짧게 언급했다. 페더럴 힐에서 일어난 일에 뒤이어 거대한 번갯불과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이 들렸는데, 동쪽으로 갈수록 그 위력은 더욱 대단했던 모양이다. 그곳에서도 기이한 악취가 확 퍼져 나갔다는 기록이

있다. 이 현상은 특히 컬리지 힐 위쪽에서 두드러졌는데, 굉음 때문에 잠들어 있던 주민들이 모두 깨어났고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며 온갖 추측을 내놓았다.

이미 깨어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언덕 꼭대기 근처에서 일어난 기이한 빛을 보거나, 나무의 잎사귀를 거의 다 털어내고 정원의 식물들을 짓뭉개버릴 정도로 강력하게 치솟은 공기의 흐름을 알아챈 이는 극히 드물었다.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떨어진 낙뢰가 이 근처 어딘가에 떨어진 것이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으나, 이후 낙뢰가 떨어진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타우 오메가 프라터니티 하우스의 한 청년은 첫 번갯불이 번쩍이는 순간 공중에 기괴하고 흉측한 연기 덩어리가 떠 있는 것을 본 것 같다고 말했으나, 이 관찰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공통적으로 낙뢰가 뒤늦게 내리치기 직전, 서쪽에서 불어온 격렬한 돌풍과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밀려왔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또한 낙뢰가 떨어진 직후 잠시 동안 타는 듯한 냄새가 진동했다는 증언 역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 지점들은 로버트 블레이크의 죽음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컸기에 매우 신중하게 논의되었다. 블레이크의 서재를 내려다보는 위치에 위층 뒷창문이 있는 사이 델타(Psi Delta) 하우스의 학생들은 9일 아침, 서쪽 창가에 흐릿한 흰 얼굴이 비치는 것을 목격했다. 학생들은 그 얼굴의 표정이 왜 저토록 기괴한지 의아해했다. 그날 저녁, 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얼굴을 다시 본 학생들은 불안함을 느꼈고, 블레이크의 아

파트에 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며 지켜보았다. 이후 학생들은 불 꺼진 아파트의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자, 결국 경찰을 불러 문을 강제로 열게 했다.

시신은 창가 책상 앞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침입자들이 그 유리알처럼 번뜩이며 돌출된 눈과, 뒤틀린 얼굴에 새겨진 극심한 경련의 흔적을 목격했을 때, 그들은 구역질 나는 경악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시관의 의사가 시신을 조사했다. 깨진 창문 하나 없었음에도, 의사는 사인(死因)을 전기 충격, 혹은 전기 방전에 의한 신경 긴장이라고 보고했다. 의사는 그 끔찍한 표정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저 비정상적인 상상력과 불안정한 감정을 지닌 자가 겪었을 법한, 깊은 충격의 결과물일 뿐이라 치부한 것이다. 의사는 아파트에서 발견된 책과 그림, 원고들, 그리고 책상 위 일기장에 눈먼 듯 휘갈겨 쓴 기록들을 근거로 블레이크의 성격이 그러하다고 결론지었다. 블레이크는 죽기 직전까지 광기 어린 메모를 이어갔으며, 경련으로 뒤틀린 그의 오른손에는 끝이 부러진 연필이 꽉 쥐여 있었다.

*****

등불이 꺼진 이후에 남겨진 기록들은 매우 산만했으며, 그마저도 부분적으로만 판독할 수 있었다. 일부 조사관들은 이 기록을 토대로 물질주의적인 공식 발표와는 판이하게 다른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보수적인 이들에게 그러한 추측은 믿음을 얻기 어려웠다. 상상력이 풍부한 이론가들의 입지는 미신에 빠진 덱스터 박사의 행동 때문에 더욱 좁아지고 말았다. 그는 그 기묘한 상자와 각진 돌을 내던져 버렸다. 그

돌은 발견되었던 창문 없는 검은 첨탑 안에서 스스로 빛을 내고 있었음이 분명했으나, 박사는 이를 내러갠셋만의 가장 깊은 수로로 던져버렸다. 블레이크가 발굴해낸 과거 사악한 이교도의 놀라운 흔적들, 그리고 그 지식으로 인해 악화된 그의 과도한 상상력과 신경증적 불안정이 그 마지막 광기 어린 메모들을 해석하는 주된 관점이 되었다. 다음은 그 기록들, 혹은 그 기록에서 간신히 읽어낼 수 있는 전부다.

"여전히 불은 꺼져 있다. 벌써 5분은 흐른 것 같다. 모든 것이 번개에 달려 있다. 야디스여, 번개가 계속되게 하소서! …번개 사이로 무언가 힘이 뚫고 들어오는 것 같다. …빗소리와 천둥소리, 바람 소리에 귀가 먹먹하다. …그것이 내 정신을 잠식하고 있다…"

기억에 문제가 생겼다.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보인다. 다른 세계들, 그리고 다른 은하계들까지……. 어둡다. 번개는 어둡게 보이고, 어둠은 오히려 밝게 느껴진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이는 저 언덕과 교회가 진짜일 리 없다. 번뜩이는 빛이 망막에 남긴 잔상일 뿐이다. 제발, 번개가 멈추기만 한다면 이탈리아인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 주기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단 말인가? 고대의 그림자 드리운 켐에서 인간의 형상까지 취했다는 니알라토텝의 화신이 아니란 말인가? 나는 유고스를 기억한다. 그보다 더 먼 곳에 있는 샤가이와, 검은 행성들이 빚어내는 궁극의 허무 또한 기억한다……."

"공허를 가로지르는 길고도 날개 짓하는 비행은... 빛의 우주를 건너갈 수 없다... 빛나는 트래퍼조헤드론에 갇힌 사념들에 의해 재창조된 그 우주를... 찬란한 빛의 끔찍한 심연을 통해 그것을 보내라·······."

"내 이름은 블레이크다. 위스콘신주 밀워키, 이스트 냅 스트리트 620번지에 사는 로버트 해리슨 블레이크다. 나는 지금 이 행성에 있다. 나는 이 행성에 존재한다. 나는 이 행성에 살고 있다. 나는 이 행성에 머물고 있다. 나는 이 행성에 있다. 나는 이 행

성에 있다. 나는 이 행

성에 있다. 나는 이 행

성에 있다. 나는 이 행

성에 있다. 나는 이 행

성에 있다. 나는 이 행

성에 있다. 나는 이 행성에

“아자토스가 자비를! — 번개가 더는 치지 않는다 — 끔찍해 — 시각이 아닌 괴이한 감각으로 모든 것이 보인다 — 빛은 어둠이고 어둠은 빛이다…… 언덕 위의 저 사람들…… 지켜야 해…… 양초와 부적들…… 그들의 사제들……”

거리감이 사라졌다. 먼 곳은 가깝고, 가까운 곳은 멀다. 빛도 없고, 유리창도 없다. 저 첨탑이 보인다. 저 탑, 저 창문. 소리가 들린다. 로

더릭 어셔. 나는 미쳤거나, 미쳐가고 있다. 저 탑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더듬거리고 있다. 내가 곧 그것이고, 그것이 곧 나다. 나가고 싶다… 반드시 나가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그것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나는 로버트 블레이크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저 탑이 보인다. 괴물 같은 악취가 풍긴다…… 감각이 뒤틀리고 있다…… 저 탑의 창문을 막은 판자가 갈라지며 부서져 내리고 있다…… 이아(Iä)…… 응가이(ngai)..... 이그(ygg)……"

"보인다—이리로 오고 있다—지옥의 바람—거대한 형체—검은 날개—요그 소토스여, 저를 구원하소서—세 갈래로 갈라진 타오르는 눈이……."